



가톨릭마산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사회 교리 주간
2023년 12월 10일
제2595호



기다림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이사 40,1-5,9-11
화 답 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제 2 독 서 2베드 3,8-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복 음 마르 1,1-8
영 성 체 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전주홍 요셉 신부

칠원본당 주임

불공평한 천국

세상 참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 갓은 호사 다 누리며 평평거리며 살다 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평생 제대로 한 번 피어 보지도 못하고 저버리는 삶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열이면 열 세상 불공평하다고 하는 걸 보면 예삿일은 아닌듯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것 또한 불공평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어떤 것은 하늘을 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땅을 걷는 것은 고사하고 기어 다니는 놈도 있습니다. 평생 물속에 있어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골짜기가 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천덕꾸러기 가시나무가 있는 반면 탐스럽게 열매 맺고 울창한 숲을 이루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 남자만 또는 여자만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키도 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재능도 같으며 성격도 다 똑같고... 높낮이 다른 산이 아니라 평평한 땅만 있었더라면.

이 얼마나 공평한 세상입니까. 다 똑같으니 서로를 향한 불평불만은 없을 듯한데 만일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무슨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 똑같은데!! 공평한 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피조물이 제각각인 것은 사랑이 흐르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풍요로운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저마다 필요한 만큼.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이사 40,3-4)

서로를 향해 사랑이 흐르고 나눔이 일어난다면. 서로의 차이, 다름이 소중해진다면.

삶이 어려워 골짜기와 같은 이들은 채워지고 산과 언덕처럼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상처 입어 마음이 굽은 이들은 치유를 통해 곧게 하고 절망과 좌절 때문에 거친 마음 지닌 이는 그 울퉁불퉁한 삶이 평온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한 불공평한 천국을 희망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세상 피조물이 제각각인 것은
사랑이 흐르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풍요로운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저마다 필요한 만큼.”



견진성사와 교회법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Q 견진성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이루므로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890조 참조). 견진성사는 신앙을 증언하고 교회의 사도직에 충만히 참여시켜 주는 성사이므로,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인 만 12세 이상을 제시합니다(교회법 제891조 참조).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대부모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교회법 제872조 참조). 그러므로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미루지 말고 견진성사를 받아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Q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성사를 할 수 있나요?

A 견진성사는 교회에서 일종의 성인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즉, 세례를 통해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성사를 할 수 있을까? 결론은 혼인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에 견진성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성사는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어른의 예식인 만큼 신앙 안에서도 어른이 되는 견진성사를 잘 준비하여 받는 것이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제가 되는 성품성사는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만이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033조 참조).

Q 견진성사는 꼭 주교님에게만 받을 수 있나요?

A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님입니다(교회법 제882조). 그러나 필요한 경우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해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제들도 견진성사를 베풀 수 있으며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본당 주임 뿐만 아니라 어느 사제라도 견진성사를 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83조 참조). 하지만 사제들이 견진성사를 베풀더라도 견진성사에 사용될 축성 성유는 꼭 주교가 축성한 것이어야 합니다(교회법 제880조). 주교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견진성사를 받는 신자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와 일치를 강화시켜 주며,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에 더욱 긴밀히 결합시키는 표징이 됩니다.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위령미사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위원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11시 30분 교구청 성전에서 <마산-그라츠> 자매교구를 위해 헌신하고 선종한 분들을 기억하는 미사를 봉헌하였다.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거행된 이날 미사 강론은 그라츠 수학 첫 신학생이던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교구 성사전담)가 맡았다. 이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故 박기홍 몬시뇰, 故 하마리아 선생 등 교구 초창기 자매결연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원천에 대해 묵상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는 2021년 자매결연 50주년을 계기로 매년 11월에 위령미사를 봉헌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원칙을 찾으려 나와 우리를 되돌아보는 상평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늦가을 초겨울을 보내는 작은 성당은 쓸쓸함과 평화로움이 교차한다. 잎사귀는 말라버렸지만, 조롱조롱 달린 조롱박은 여전히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성 요셉상을 지나면 성 김대건상을 만난다. 장미화원에는 철모르고 핀 장미 송이가 고개를 내밀며, 성모동산에 이르게 이끈다. ‘평화의 모후’를 본당주보로 모시는 상평동성당 신자들은 성모님 앞에서 더 평화롭다.

변칙과 반칙을 멀리하고

성전에 들어서면 독서대 뒤에 높이 자리한 성모님이 돋보인다. 단출하고 소박한 성전이지만, 다각을 이루는 나무 천장의 질감이 분위기를 숙연하게 한다. 반주가 없이 수도자가 선창하는 성가에 신자들은 정성스레 소리를 엿는다. 정운호 베드로 주임 신부는 명쾌한 목소리로 신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원칙에서 돌아서 변칙과 반칙으로 흐르는 사회를 언짢아하며, 신앙 안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함을 말한다. 변칙과 반칙을 멀리하고 원칙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것이 복음 정신이다.

정운호 신부는 <상평주보>에 나주성모경당 방문금지와 교회에서 금지하는 도서와 기도회를 일일이 공지하고, 붉은색으로 명기하여 신자들이 신앙 생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함께 이루어야 할 질서를 당부한다.

지속적인 성체조배는 여기 신자들의 신심을 굳게 하는 핵심이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성체조배가 다시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밤낮으로 이어진다. 진주의 거의 모든 성당은 성체조배가 지속되

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시 시작되었다. 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 담당 사제인지라 정운호 신부는 본당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행해지기를 바란다. 성체조배는 옥봉동성당에서부터 이어진 교우들 믿음의 우물이다.

역사 속의 히로아락

상평동본당은 옥봉동본당에서 분리되어 1979년 1월 5일 신설되었다. 진주의 도동지구가 개발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자들의 숙원이던 성전 건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해 11월 28일 재일교포 김정환 프란치스코의 큰 도움과 교우들의 지극정성으로 헌당식을 치렀다.

아직 새 성당이라는 이미지가 지워지기도 전에 상평동성당 신자들은 새로운 과업을 안았다. 1986년에 하대동본당을 분리하여 살림을 내느라 힘을 모았다. 물론 진주의 다른 성당과 교구에서의 지원도 있긴 했지만, 상평동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고 모든 것을 관장해야 했다. 하대동의 분리로 많은 젊은 층 신자들이 빠져나간 뒤에 남은 신자들은 많이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간 만큼 채우기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신심단체들이 확장되고 공동체는 안정을 찾아갔다.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은 2004년에는 『상평동성당25년사』를 발간하여 서로 결속하며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하여 또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부흥했던 공단이 쇠락하고, 혁신 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경향에 따라 신자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거기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가 회복되는 과정이 더디기만 하다.

박천출 베드로 사목회장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항상 장미가 만발하고, 10월이면 금목서 향기가 멀리 퍼지는 예쁜 성당 마당을 자랑한다. 그는 세례 받은 지 30년 정도 되었지만, 사업체의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에 소홀하게 지냈다. 그때 원로인 장 회장이라는 분이 전화하여 “베드로를 위해 한 달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맞은 것처럼 찢어진 감동을 안고 돌아왔다. 꾸리아 단장을 거쳐 부회장을 지냈고, 회장까지 맡게 되었으니,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른다. 최계정 스테파니아 사무장은 상평동성당에서 세례 받은 지 20년이 되었고, 사무장이 된 지 5년이 되었다. 이태 전 쓰러져 한 달 병가 후



돌아왔을 때 신자들의 염려와 응원이 쏟아져 몸 둘 바를 몰랐고 너무나 감사했다. 성당을 내 집같이 신자들을 내 몸같이 아끼는 마음이 생겼단다.

다시 원칙!

알고 있는 원칙이지만, 타협하거나 외면하다보면 반칙이나 변칙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정운호 신부는 ‘원칙이 무엇인지?’ 교회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당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신자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 그랬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얼버무리려는 습성은 아니라는 확고함으로 사목하고자 한다.

올해 부임 후 조금씩 상황을 파악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되돌리는 시간을 할애했다. 신심단체들의 활동도 조금 더 끌어올리고자 했다. 10월 본당의 날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명례성지 순례를 다녀오며 공동체의 사랑을 돌아봤다.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동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기에 아름답다.

거리두기로 인해 소수만 운영했던 사목위원회도 차기에는 원래처럼 정상인원으로 되돌려,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현 부회장인 장명조 베르나르도가 차기 회장으로 선임이 되어 있어, 너도나도 ‘장 맥가이버’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장명조 베르나르도 부회장은 ‘상평의 맥가이버’라고 불린다. 성탄이면 성당 안팎으로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성당묘지를 벌초하고 관리하는 일에도 술선수범한다. 그는 신협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에는 사무장을 몇 년간 맡아 일한 적도 있어,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들여다본다. 성당의 사소한 일에서 큰일까지 손봐야 하는 것은 모두 발 벗고 나서는 일꾼이다.





교구장 서리 동정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

일시: 12월 11일(월) 16:00
장소: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가르멜의 모후 수도회 종신서원식
일시: 12월 14일(목) 10:00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12월 12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광주가톨릭대학교 수시입학고사

일시: 12월 12일(화) 14:00

교구청 직원 직장인 법정무교육 및 연수

일시: 12월 15일(금)/ 장소: 교구청

청년 로고스 성경 강좌

일시: 12월 17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교육 봉사자 종강미사

일시: 12월 16일(토)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 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12월 23일(토)까지(면담 후 봉사자 교육)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마산장애인복지관 2023년 연말

감사행사

일시: 12월 15일(금) 16:00~20:00

장소: 다이룸플러스 5층
(서성동 KT 건물)

대상: 마산장애인복지관 후원자,
자원봉사자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55·247·5194~7

기 타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4년

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분: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2월 14일(목)까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접수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

▶본과정은 온라인 영상 강의로 진행됩니다.

일정: 12월 12일(화)~24년 1월 30일(화)/ 8주 과정

시간: 매주 (화) 14:00, 22:00

지도: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접수: 문자로 접수 010·8911·5957

회비: 5만 원(교재비 별도)/ 교재 주문 가능

봉헌식: 주님 봉헌축일 2024년 2월 2일(금)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성탄전례 청년 피정

일시: 12월 23일(토)~25일(월) 2박 3일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주일) 16:00~2024년 1월 1일(월)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송년미사, 해맞이, 신년 대축일 미사)

접수: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계좌: 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 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신청 및 문의: 055·221·1891

진영본당 제3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승원(마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박충신(알폰소)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최안례(아녜스)

총무분과위원장: 송계웅(바오로)

재경분과위원장: 강경희(로사)

전례분과위원장: 황숙자(베로니카)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영자(프란치스코)

지역분과위원장: 김정숙(스텔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최애숙(말세리나)

시설관리분과위원장: 김병찬(베드로)

청소년분과위원장: 장경훈(바르나바)

성지관리분과위원장: 박준규(아우구스티노)

꾸리아단장: 황숙자(베로니카)

회원동본당 제2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박경래(안토니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전봉기(안토니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강정신(로사)

총무분과위원장-홍보겸임: 이주수(프란치스코)

총무분과-시설담당: 김천일(베네딕도)

총무분과-교육·가정사목담당: 임정화(올리안나)

재경분과위원장: 박병건(그레고리오)

전례분과위원장: 왕영숙(요안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덕순(빅토리아)

구역분과위원장: 안봉순(그라시아)

청소년분과위원장: 정미애(라파엘라)

선교분과위원장: 김정숙(제노베파)

성소분과위원장: 김정임(마리아)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가톨릭 세례를 받은 40세 이하 미혼 자매
문의: 010·9353·1773 김토마스 수녀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송년피정

일시: 12월 30일(토)~31일(주일) 1박 2일

장소: 부산 본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문의: 010·2817·3101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력서(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원서: <https://uus.pauline.or.kr> / 24년 1월 31일(수) 마감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나자렛소규모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모집

대상: 요양보호사 1급(50세 이상-정규직)

접수: 2024년 1월 10일(수)까지 E-mail 접수

E-mail: sjncc2007@hanmail.net

문의: 나자렛소규모요양센터 055·532·7811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고성본당 제30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홍성표(미카엘)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근우(클라우디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박옥명(미카엘라)

총무: 장득수(제노)

기획관리분과위원장: 이형숙(세실리아)

전례분과위원장: 김수경(올리안나)

복음화분과위원장: 권명희(이레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강은영(루시아)

홍보분과위원장: 한상임(미카엘라)

구역분과위원장: 최미녀(모니카)

청소년분과위원장: 유경희(모니카)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권정순(아녜스)

시설분과위원장: 서영우(가브리엘)

칠원본당 제21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주원식(베드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박갑춘(대건 안드레아)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주상미(올리비아)

총무부장: 황정아(마르첼라)

선교분과위원장: 김진희(요안나)

전례분과위원장: 주선영(마리아)

구역분과위원장: 윤영란(세라피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정진(올리비아)

시설환경분과위원장: 김해동(테로니모)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영희(아녜스)

홍보분과위원장: 감정숙(엘리사벳)

교육분과위원장: 황종환(다윗)

재정분과위원장: 허민도(갈리스토)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2월 11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체안의 예수님을 본받음	최봉근 디오 선교사(CPE 전국연합 해외 담당)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살레시오회	12월 17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지금여기 사진관
김찬우 (사도요한) 010-8949-7901
위치: 창원 용지호수앞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토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명례성지에서

박정아 안젤라 동화작가/ 가톨릭문인회

가을이 깊어졌다. 명례성지 언덕에 서 있는 큰 팽나무도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팔을 벌려 반갑게 맞아주시는 성모님의 미소가 푸른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세례 받기 전에도 몇 번 와 본 적이 있지만 재작년 세례 후 다시 왔을 때는 한 발 한 발 걷는 발걸음이 성지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게 되었다. 이후 시간이 될 때면 자연스레 명례로 향했다. 언덕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 무거웠던 마음은 선물처럼 주어진 하루에 감사함을 느꼈다.

고향이었던 동네와 폐교가 된 학교를 걸으며 어린 날을 떠올렸다. 낙동강 독길을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시골에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였다.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강변에 밭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비가 와서 강물이 범람하면 농작물을 모두 망치기도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자전거 도로와 갈대밭이 조성되고 오토캠핑장까지 들어섰다.

즐거웠던 기억이 별로 없는 고향이라 거의 잊고 살았었다. 그런데 그림처럼 아름다운 성지가 조성되어 나를 이끄는 장소가 되었다.

성경의 구절 중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라.”(시편 23,1-3)는 구절이 있다.

이 시편은 읽을 때마다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마치 내가 푸른 풀밭에 앉아있는 느낌이다. 과거 이스라엘 땅은 넓은 광야였을 것이다. 황무지 땅에 물이 흐르고 풀밭이 있는 곳은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었다.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물가를 찾게 되고 영혼에 생기를 얻을 수 있었고, 풀밭에서 편히 쉴 수 있었다.

성당에 다니게 되면서 마음의 갈등이 자주 찾아왔었다. 그것은 나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으로 연결되는 갈등이었다. 성당을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싫고 좋음이 상대방을 고려하기보다 나를 위주로 쉽게 결정을 내렸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오면 내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불편한 마음도 곧 나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문득 내가 한 마리 양이 되어 풀을 뜯는 상상을 해 보았다. 아직 막막하고 부족한 의지를 가진 양의 모습이었다. 힘든 오르막 또는 망설임의 갈림길에서 성급한 결정보다는 천천히 기쁜 마음으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신앙심을 채우기까지는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사랑이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다리며 준비해야겠다.

가톨릭문인회원 7인 묵상집

시편, 얼을 찾다

교구청 이전 준비로 부산했던 23년 봄 가톨릭문인회 일곱 분이 시편을 함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시편은 시간경 기도, 미사전례 화답송, 위령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친숙한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새 번역 성경보다 구 공동번역이 시적 표현이 잘 드러난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시편의 찬미와 탄원, 교훈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가슴으로 소화한 글을 모았습니다. 모조록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불러드리길 희망합니다.

-교구 사무처장 주용민 리노 신부-

- 지은이: 고광주 에스더, 김연희 크리스티나, 김정권 시몬, 문옥영 테오도라, 윤선희 드보라, 조정자 이사벨라, 황광지 가타리나
- 출판: 불휘미디어





사울의 시기와 다윗의 피신(1사무엘 18-21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이번 순례는 사울 왕국의 수도인 기브아와 라마, 나웃을 거쳐 갓 지방까지 이르는 곳을 둘러보게 될 터인데, 인간의 허약함과 죄스러운 현실이 빚어내는 비극의 시작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사울 임금의 군사령관이 되었고, 요나탄은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의형제 계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출전하여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에는 다윗의 성공이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날 여인들은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을 수만을 치셨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말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사울은 악령이 들려 발작하는 그를 위해 비파를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두 차례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용케 몸을 피하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한 다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사울은 원수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다윗에게 필리스티아인들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였지만, 정작 사울은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한 때에 그를 아주 멀리 시집보내고 맙니다. 이어서 작은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갈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백 개를 신부의 몸값으로 요구합니다.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이백 개로 신부 몸값을 치르고 미갈을 아내로 삼습니다. 하지만 사울 임금은 부마가 된 다윗을 여전히 두려워하여 그와 평생 원수가 됩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해 위기에 처한 다윗을 사울의 측근들이 돕습니다. 사울의 맏아들인 요나탄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임금을 설득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죽이는 일은 죄가 된다고 말하자 사울은 그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악령이 들인 사울은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다윗이 도망을 치자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미갈은 수호신을 침상에 눕혀 놓고, 다윗이 앓아누워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라는 사울의 명령을 듣고 다윗의 집으로 온 전령들이 미갈의 속임수를 알아채자 미갈은 다윗의 협박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노라고 변명합니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나웃으로 가서 머무는데, 이를 안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령들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낸 전령도 실패하고 돌아오자 사울이 직접 나웃으로 가지만 그도 역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은 나웃에서 달아나 요나탄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나탄을 통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다윗은 요나탄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나 뚝으로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엘리와 아히야의 형제입니다. 아히야는 당시에 실로 성소의 사제였고, 아히멜렉은 뚝의 사제였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임금이 지시한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축성된 빵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 떠나갑니다. 이날 다윗은 목숨을 구하고자 필리스티아의 갓 임금 아키스를 찾아갑니다(1사무 21,11-16). 그런데 아키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고 맙니다.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고된 피난 살이를 시작해야 했던 다윗은 훗날 부하 육백 명을 거느리고 다시 아키스 임금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1사무 27,1-4). 고된 피난 살이는 다윗의 인격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